

# 북한개발소식

2024 MAR

03

통권 221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지역 격차와 그 시사점

탈북민 수기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북한뉴스

임금채불 北노동자 2천명 1월 中서 공장 접거...  
관리인 맞아 숨져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북한의 지역 격차와 그 시사점

오른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4 MAR

이달의 주제 :

### 북한의 지역 격차와 그 시사점



- 권두칼럼 **01** 북한의 지역 격차와 그 시사점
- 칼럼\_1 **09** 임을출\_ 북한의 지방발전정책: 지역간 격차와 북한 당국의 대응
- 칼럼\_2 **15** 최 설\_ 북한 지방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독재정치 연관성
- 칼럼\_3 **21** 함승수\_ 북한의 지역간 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 탈북민 수기 **28** 지한나\_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제 3화)
- 북한뉴스 **34** 임금체불 北노동자 2천명 1월 중서 공장 점거...관리인 맞아 숨져
- 서평 **37** 북한선교의 빛 /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
- 북한 기도 제목 **39**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2024년을 시작하며 북한은 대외적으로 전향적인 노선 변화를 천명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경제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별히 북한은 1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의 경제난 극복을 강조했다. 이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에 공장다운 공장이 없으며, 간부들은 뜻뜻미지근한 말이나 하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발전 20x10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책임자로 하는 ‘지방발전 20x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도 꾸려졌다. 일종의 테스크포스(Task Force, TF)이다.



<지방발전 20x10 정책 선전화>

이번 북한의 지방 경제 언급에서 주목할 점은 지도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열악한 지방 사정을 질타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서해안 보트 귀순자 등을 통해 식량 부족 사태와 아사자 발생 정황이 포착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나 평양의 움직임에는 기근으로 불릴만한 경제난의 정황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난이 지역별/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과 새로운 지방 발전 정책은 지방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다.

## 시장화와 북한의 지역 격차

북한 내 지역간 불평등의 원인은 복합적인데, 이를 정리해보면 1) 출신 성분에 따른 거주 지역 제한, 2) 기업 및 산업의 지역별 편중, 3) 국가의 통제 능력 약화, 4) 시장 의존도 증가, 5) 중국과의 인접성 등 5가지를 꼽을 수 있다.<sup>1</sup>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토대)에 따라 주민들의 거주 지역이 차별화되며, 국가의 재원이나 기반시설 투자도 지역별로 차별화된다. 여기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시장화의 진전이 더해졌다. 중앙배급경제가 붕괴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에 이점이 있거나 국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지역, 또 상품 및 자원을 생산, 유통시킬 수 있는 산업이 발달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소득의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시장화는 지역 격차 확대를 부추기기도 했지만 당국의 투자와는 별개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비접경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소득수준도 낮았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북중 무역 급증으로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가했다. 임을출(2016)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지역들, 예를 들어 중국과 소통하며 사람과 물자의 흐름이 많은 거점지역과 항구에 인접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sup>2</sup>

북한의 지역 격차 문제에서 평양 집중 현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평양집중도는 상당히 심한 편이다.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 기반시설 등이 집중되는 도시를 종주도시라고 하는데, 평양의 종주도시화 지수<sup>3</sup> 를 계

산해보면 2019년 기준 평양은 2위 도시 대비 4.78배, 2위부터 4위 도시의 총합과 비교 시 2.02배를 가리키고 있다.<sup>4</sup> 서울의 2.86배와 1.10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남한의 경우 종주도시화 정도는 70년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한에서 관찰되는 서울 집중 양상을 생각해볼 때, 북한에서의 평양 집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내 지역간 소득 격차에 대한 채수란(2020)의 연구에서도 평양과 그 외 지역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중 접경지역 사람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북한돈 100-13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내륙지역 사람들은 80-96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중류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평양시민의 평균소득은 북한 돈 290여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접경지역과 내륙지역의 소득격차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평양과 비평양의 격차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이러한 평양과 지방의 격차에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 평양을 우선시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한다. 23년 9월 5일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북한의 경제·사회, 정치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탈북민 34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양이 65.2%인 반면 접경지역은 32%, 비접경지역은 그보다 낮은 27.9%로 나타났다. 생필품 배급 경험을 역시 평양 50.7%, 접경지역 25.9%, 비접경지역 27.7%로 조사됐다. 지방에서 경험하는 식량과 생필품 배급의 혜택이 평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 제재, 경제난 등으로 자원 부족이 심화한 가운데서도 핵심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



〈21년 3월 23일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착공식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2021-2025년)에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고혜진(2020), “북한의 지역간 기아 수준 격차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20년 7월호, 8-9.

2 임을출(2016), “북한 지역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8권 2호 (66호), 112-113.

3 종주도시화 지수(데이비드 지수)는 한 나라의 종주도시의 인구를 인구 규모 순위에 따라 제2위, 제3위, 제4위 도시의 인구의 총합으로 대비시킨 지수이다. 이 방식을 처음 사용한 데이비스(Kingsley Davis)의 이름을 따서 데이비스 지수라고도 불린다.

4 최천운(2020), “김정은 시대 부동산 시장의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정책보고서 2020-03, 19-20.

5 채수란(2020), “김정은 시대 비평양지역 가계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4권 2호, 66.

이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 평양과 지방의 지역 격차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up>6</sup>

## 코로나19와 지방 침체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외부와의 교역과 시장 활동의 위축은 지방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먼저 그동안 중국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지리적 이점을 누리던 지역들의 침체가 불가피해졌다.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야간조도 밀도와 인구를 기반으로 지역간 경제 편차를 비교한 김다울(2022)의 연구에 따르면, 대북 제재 이전에는 내륙에 위치한 도들이 주요 저소득 지역이었으나, 대북 제재가 중첩된 이후에는 양강도와 자강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sup>7</sup> 북중 무역의 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제재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내외 봉쇄 정책이 조사기간 이후에도 더욱 강도 높게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접경지역의 소득 감소는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접경지역의 소득 감소는 시장을 통해 발전해왔던 지방경제의 위축과도 맥을 같이한다. 각종 방역 통제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시장 운영의 차질과 외부로부터의 물자 반입 제한 등으로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했다. 시장 활동 침체로 상업, 유통 등 서비스업에 참여해왔던 많은 북한주민들의 소득원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시장수요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지방의 산업생산도 위축되었다. 대북제재 이후에도 유지되던 경공업용 중간재의 수입이 국경봉쇄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공업부문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sup>8</sup>

반면 평양에서는 대규모 살림집 건설로 대표되는 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자원이 평양으로 집중되었고, 평양을 후방 지원하는 평안남도과 인근 위성도시들, 그리고 물자 유입 관문인 신의주 등은 수혜를 입었다. 자체적인 경제 발전의 동력을 상실해가는 지방과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전국으로부터 물자를 흡수한 평

양 및 관련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시장화에 따른 지역간 소득 격차가 주된 지역 격차의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당국의 통제에 따른 자원 분배의 왜곡이 지역 격차 발생에 더 큰 지분을 차지하는 모양새이다.

##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의 맹점

북한의 지방 발전 정책은 이번 20x10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들이 제시되어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특화된 지방 공업 육성이었다.<sup>9</sup> 북한은 2012년 1월 22일 개최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며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지방공업 발전의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며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는 시·군을 거점으로 자기 지역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시·군발전법’을 채택하였다.<sup>10</sup> 이번에 언급된 지방발전 20x10 정책 역시 지방공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수적일 것이다. 중앙으로부터의 투자와 외부로부터의 설비 및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지방경제’를 언급할 때, 그 행간에는 일반적으로 ‘자력갱생’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지방경제의 자력갱생이란 “지방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당수 생필품의 생산 및 공급을 지방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sup>11</sup>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앙으로부터의 투자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고난의 행군으로 중앙배급시스템이 붕괴되고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각 지역주민들과 기업소들은 자기 살길을 찾아 나서왔다. 말 그대로 자력갱생에 뛰어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리적 이점이나 풍부한 자원 등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발전에 중앙의 역할은

6 “北 지역격차 상당...식량 배급 경험률 평양-지방 2배 차이”, 데일리NK (2023.09.05.), <<https://www.dailynk.com/20230905-4/>>

7 Dawool Kim(2022), “Assessing regional economy in North Korea using nighttime light”, Asia and the Global Economy December 2022 2(3), 100046.

8 이석기(2023), “코로나19 이후 북한 산업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3년 9월호, 26-28.

9 임을출(2016), 앞의 글, 121.

10 이해정(2022), “김정은 시기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2년 12월호, 49-57.

11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374.

제한적이었다. 최설(2021)은 평안남도 순천시의 경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지방경제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시장을 통제하고 지방에서 나온 잉여 수익을 수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sup>12</sup> 예를 들어 2000년대 중순 석탄수출 확대를 통해 순천지방경제가 활성화되자, 당국은 대대적인 검열을 수시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 순천 경제가 일시적으로 패닉에 빠졌던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석탄 수출 이권은 당 자금 확보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검열과 단속이 장기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북한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경제적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에 제시된 지방경제 20x10 정책 역시 이러한 이슈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정책은 김정은이 직접 의지를 보인 만큼 추진력 있게 시행될 것이고, 각 지역에 맞는 발전을 표방한 만큼 과거에 비해 실제적 영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회의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먼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국경 봉쇄 이후 기존 시설의 가동도 원자재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을 200여 곳을 더 짓는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설비, 자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국방분야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중앙이 지방 경제를 돌볼 상황이 아닌 만큼 지방 정부에게 더 큰 할당량과 책임을 맡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sup>13</sup>

## 20x10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실 20x10 정책은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과 같은 원대한 목표가 아닌,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장 건설이라는 나름 실용적인 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경제 침체의 이유를 생각하면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그 해답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당국이 본보기 공장으로 선전하는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과 같은 자동화,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가 아닌 외부

로부터의 자재와 설비, 그리고 중간재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재단은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력 경쟁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경제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 등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북한의 20x10 정책이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와중에 중앙에서 내려 보낸 지시사항이 지방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며, 지방의 입장에서는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아무 지원도 하지 않고 내놓으라는 것만 많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전언도 아울러 전했다.<sup>14</sup>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 시장 친화적 정책과 대외 무역의 활성화로 의미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던 기억이 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민간 영역을 통한 경제 발전의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의 전적인 도입이나 경제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경 개방의 확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물자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협력이나 투자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지역 발전 전략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만 관건은 외화 부족이다. 북한은 2022년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3년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무역 적자 규모도 상당해서 2022년 7.6억 달러로 늘어난 뒤, 2023년 17.4억 달러로 급증했다.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출 가능 품목은 제한적이다 보니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 대해 홍제환(2024)은 북한이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외화를 충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무역적자를 장기간 버텨내기 힘들어 보이는 만



〈북한이 지방경제 본보기로 선전하고 있는 김화지방공업공장〉


12 최설(2021),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의 지방경제 변화 연구 - 평안남도 순천시 사례",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6호 (2021.03), 117-151.

13 [클로즈업 북한] "20x10 지방을 바꿔라"…정책 실효성은?, KBS (2024.02.0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2377>>

14 "북한의 '지방발전 20x10정책'이 성공하려면", 평화재단 현안진단 323호 (2024.02.20.), <[https://www.pf.or.kr/wpages/01-3\\_research\\_2.php?bbs\\_no=6690&bbs\\_code=10001&symode=view](https://www.pf.or.kr/wpages/01-3_research_2.php?bbs_no=6690&bbs_code=10001&symode=view)>

큼, 대중무역 규모는 현 수준에서 더 증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sup>15</sup>

북한은 24년 들어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민족과 통일에 관한 유혹도 포기하고 군사 도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이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국가 자원 분배도 군사력 증강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지방 발전을 위해 소중한 외화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특히 경제난이 심한 지방 지역 중 상당수가 거주자들의 토대가 그리 좋지 않은, 정권 입장에서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다. 북한이 기존에 보여왔던 지역별 차별적 태도가 있다 보니 이번 지방발전 20x10 정책도 결국 어려운 경제사정의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민생 안정은 핵과 군사력 증강만큼이나 국가적 안녕을 위해 중요한 과업이며 당국도 확대되는 지역 격차와 지방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만큼, 아무쪼록 이번 20x10 정책이 그동안의 차별적 자원 분배가 아닌 지방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더 나아가 북한이 군사력에 의지한 체제 유지의 맹점을 깨닫고 지금의 강경 노선이 아닌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방향성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해본다. 

15 홍제환, “2023년 북한의 대중 무역 실태와 그 함의: 제재 하 무역 확대 쉽지 않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12 (2024.02.07.)

## 칼럼 1

# 북한의 지방발전정책 : 지역간 격차와 북한 당국의 대응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1.15)에서 지방 경제 상황을 한심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에 모든 시, 군, 즉 모든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지방들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장다운 지방공장이 하나도 없다”고도 밝혔다. 최고지도자의 입에서 직접 수도와 지방간의 불균형이 언급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승계한 초기부터 지방균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지방 경제사정이 어렵고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일찌감치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이념과 가치를 앞세우며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게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의 심화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현재 북한의 당면 과제로 수도와 지방 사이 ‘지역간 불균형 극복’을 꼽으며 지방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 사회주의 북한의 지방경제와 격차발생<sup>1</sup>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인민이 누구나 다같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이다. 북한 스스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취와 압박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아직 사회주의가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한 조건에서 농민들 사이의 분배 몫과 생활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차이는 아직 농업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농업노동의 차이가 남아 있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차이를 없애고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집단주의에 기초하면서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근로자, 농민들의 생활수준 차이를 없애고 생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김정은 정권은 특히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이 각 지역단위에서의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 지정 및 육성이다. 이는 중국 사례와 같이 외자유치를 통한 지방발전방안의 하나였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불러왔고, 경제개발구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다른 한편 지방 재정의 고갈과 지방경제의 파탄, 자생적 시장활동이 번창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왔다.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병폐로 비판해 왔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반화될 정도로 빈부격차 문제는 오늘날 북한 정권의 최대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 사회의 상층은 핵심계층과 사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재구성되었다. 대다수 주민들은 하층으로 전락하고, 중간층은 대부분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소득구조로 인해 항시 하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에는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불균형, 정치적 불균형, 행정적 불균형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서의 불균형 요소는 역시 경제적 불균형이다. 지역문제는 주로 지역경제, 소득 격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불균형은 장기간 군수 산업 육성을 위해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전략을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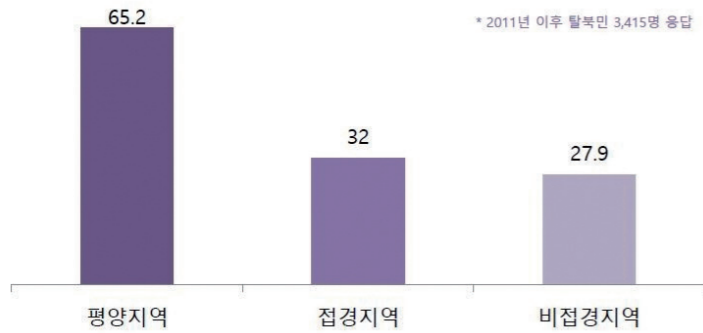
정된 재원으로 평양을 비롯한 일부 도시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이들 주요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전된 주요 지역에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구조 조정의 실패로 인해 주요 지역 간에도 경제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은 지방경제의 발전을 국방 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위 조건으로 간주해왔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면 우선 경공업에 대한 국가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 자금을 국방공업에 돌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경제 및 행정관련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인적, 물적 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시장화 진전에 따라 지방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적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지만 각 지방도 경쟁에 노출되었다. 결국 지방 정부도 시장 적응 능력에 따라 지역별 빈부격차가 다르게 형성되었다.

## 2. 지역 간 격차 실태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지방단위의 자력갱생이 본격화되고, 장사 및 부업 등 사적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계층 및 지역 간 빈부격차가 핵심 사회갈등 요인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는 최근까지 지속 또는 악화되고 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이 2023년 9월에 펴낸 ‘북한의 경제·사회, 정치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탈북민 34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양이 65.2%인 반면 접경지역은 32%, 비접경지역은 그보다 낮은 27.9%로 나타났다. 식량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배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평양과 지방에 큰 격차가 있었는데, 실제 생필품 배급 경험률은 평양 50.7%, 접경지역 25.9%, 비접경지역 27.7%로 조사됐다. 접경 및 비접경지역의 식량 배급 경험률과 생필품 배급 경험률은 평양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식량과 생필품 배급의 혜택이 평양에 집중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구 내 전자제품과 정보기기 보유율과 보건의료 경험률 등에서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드러났다. 냉장고 보유율은 평양, 접경지역, 비접경지역 순으로 각각 72.6%, 24.8%, 32.3%로 조사돼 평양에 비해 지방의 냉장고 보유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컬러TV(84.7%, 67.2%, 63.6%)와 선풍기(78.2%, 52.6%, 62.2%)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역시 평양이 지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기인 휴대전화 보유율의 경

<sup>1</sup> 임을출,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6), pp.91~126 참조.

식량 배급 경험률(단위 : %)



〈통일부 '북한의 경제·사회·정치 동향' 분석 자료의 '식량배급경험률'.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양이 그 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우에는 평양이 71.2%로 70%를 웃돌았지만,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각각 31.1%, 36%로 평양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컴퓨터 보유율은 평양, 접경지역, 비접경지역 순으로 58.3%, 16.4%, 16.9%로 조사돼 평양주민의 컴퓨터 보유율

이 지방 주민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양과 지방 간 가전제품 및 정보기기 보유율에 큰 격차가 나타난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보건·의료와 관련한 조사에서 병원 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양 80.3%, 접경지역 58.5%, 비접경지역 63.1%로 평양 시민의 병원 진료 경험률이 타 지역 대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 구입 경로에도 평양과 지방에 차이가 있었는데, 평양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은 장마당에서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 49.2%로 가장 높았다. 대북제재, 경제난 등으로 자원 부족이 심화한 가운데서도 핵심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도 평양과 지방의 지역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sup>2</sup>

필자의 과거 실증 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농업이 발달된 도시가 공업 및 상업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못사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농촌지역이면서 접경지대와 먼 지역일수록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 및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로 자본이 집중되고, 중국 대외 경제 의존도의 심화로 중국 접경 도시로 자본이 이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사실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 수준의 격차뿐 아니라, 정치, 문화 등 모든 부문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국가 계획경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의 협동농장제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농경을 주 생산 수단으로 하고 있는 농촌은 국가계획경제분을 완수하고 나면 개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잉여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면 도시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제활동 기회가 많아 국가계획경제분을 수행하고도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소득이 존재

2 『데일리엔케이』, 『문화일보』, 『KBS뉴스』 등 국내언론보도 종합(2023.9.5.)

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지역별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고착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특히 시장(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상업 및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로 부가 집중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접경도시로 부의 이동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발견했다. 결국 농촌 지역이거나, 중국 접경지대와 먼 지역일수록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향후 전망

북한의 지역격차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과 지방 간 격차이다. 특히 도농 간 격차는 도시주민과 농민의 수입격차 확대와 수입격차를 배경으로 하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유출 및 그에 따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농촌에는 대다수의 절대적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소비재를 포함한 기타 소비생활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 결과 더 높은 수입과 더 높은 생활수준을 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게 된다. 물론 북한은 현재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을 앞세우며 고층아파트 등 각종 생활·문화시설을 평양에 집중적으로 건설해왔다. 물론 김정은 정권은 지방에도 살림집과 생활문화 생활을 이전보다 많이 건설해왔다. 또한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구상하고, 부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 구상의 핵심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이는 특화된 지방공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애초에 김정은 정권은 일부 지역을 먼저 부유하도록 하는 선부론(先富論)과 같이 경제개발구 지역에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을 통해 다른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그해에만 14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이후 지정된 경제개발구는 기존 경제특구와 함께 모두 29개에 이른다. 김정은 정권은 관광객유치와 외자유치를 통한 지방균형발전을 꾀했다. 이를 위해 전국에 관광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점진적으로 건설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언뜻 보면 일부 지역을 먼저 개방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라는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과 유사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기초적 논리를 제시한 선부론(先富論)의 당위성은 일부 지역의 부(富)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게끔 하는 낙수효과(trickling-down effect)가 전제되어야 한다. 불균형발전론에 입각한 일부 지역에 대한

# 북한 지방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독재정치 연관성

최 설 (굿파머스 연구소)

## 1. 들어가며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1.15) 시정연설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했다.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10년 간 건설하여 노동 간 격차와 인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당 정치국 확대회의(1.23-24)에서는 지방 주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간부들을 질타했다.

평양종합병원과 평양5만세대 살림집건설 등 평양민심에만 주력했던 최고지도자가 낙후한 지방에 눈길을 돌린 것은 집권 후 처음이다. 물론 삼지연시 건설과 양덕온천휴양지 등 지방부면에서의 치적성과도 있다. 그러나 백두산이 자리한 삼지연시 일대는 주민세비 수단인 계급교양 거점이며, 양덕온천휴양지는 체제유지 확보에 절실하게 필요한 외화벌이 관광지로 꾸러졌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방발전 20×10 정책> 의도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생활고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평양건설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던 지방민심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12월 제8기 4차 당 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며 농업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 생필품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맥락이 이어진다. 정리하면 지방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농업과 경공업을 추겨 세움으로써 민심이반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주목되는 것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비상설 추진위원회 정점에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건설 관련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는 통제권이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부여되어 도마다 운영되는 <지방발전 20×10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한국경제)>

우선발전정책은 분명히 발전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발전이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회 안정과 지역 간 화합이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개혁·개방

의 논리로 내세운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은 중국 사회에 빈부 격차라는 독버섯을 심었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몇 해 동안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이어갔지만, 빈부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졌다.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나타났던 빈부 격차가 도시와 개발지역 안에서도 확대 재생산되었다. 북한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의 초기 형태와 비슷한 지역 간 빈부격차의 양태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지역 간 소득격차의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심화 현상은 북한의 경제와 정치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 모순의 대표적 표현이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가 북한 경제와 정치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농촌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농촌진흥을 위한 목표와 함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다만 지금 지방발전정책의 성패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선부론 측면이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지역 간 발전격차, 빈부격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사회주의건설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지방발전 20×10 정책) 비상설 추진위원회 책임을 맡은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장》

정책) 비상설 추진위원회가 경제부서가 아닌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하부 조직으로 지도를 받게 됐다. 지방의 발전을 운운하면서 지방정부 자율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3대 세습되는 북한 독재정치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발전 20×10 정책> 사령탑에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선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원고는 김정은 정부의 <지방

발전 20×10 정책> 배경을 독재정치 연관성으로 접근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북한 지방경제 형성 배경

북한의 지방경제 거점은 군(郡)을 단위로 한다. 리(里)는 작고 도(都)는 크므로 리(里)와 도(都) 사이 행정구역인 군(郡)이 지방경제 단위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마다 자리한 지방경제기관들의 지도 밑에 관리 운영되며 지방의 생산 원료나 생산 원천에 기초하여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발전하는 경제 분야를 지방경제로 통칭한다.<sup>1</sup> 남한의 지역경제 개념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 지방경제는 군수공업과 연결되어 있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킨다는 정책노선을 배경으로 한다. 전후 재건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회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북한은 국방전략 일환으로 지방경제 발전을 중시하였다. 대규모 기업들은 중앙공업으로 중소규모 기업들은 지방공업으로 분류하고, 국가재원을 중앙공업인 중화학공업에 투자한 반면, 지방공업은 중앙공업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자재, 지방에서 나오는 농업 생산물, 부업 생산물 등 지방에 잠재된 생산력을 이용해 중앙의 투자 없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지방이 원료와 설비, 노동력을 자체로 해결해 지방공업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생필품을 생산 공급하면 중앙은 군수공업과 연계된 중화학공업에 국가재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원료 원천지와 가깝고 생산물 수급이 유리한 군(郡)

1 『경제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577.

을 단위로 산업을 끌고루 배치<sup>2</sup> 하였지만, 중화학공업을 중앙공업으로,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 부문은 지방공업으로 차별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 노선의 배경은 또다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적의 폭격으로 중앙의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지방 스스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방공업이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공업이 발전하려면 원료 생산의 중추를 담당하는 농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해졌다. 북한의 전체 농업 생산 계획은 리(里)·동(洞)단위로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농업과 지방공업을 적절히 연결시키려면 경제단위가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하는 지역적 거점이 바로 군(郡)이다. 군과 규모가 유사한 시(市)와 구역(區域) 역시 군과 동급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서 중앙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요인을 제공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강조해 온 ‘자립적 지방경제’란 지방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상당수 생필품의 생산과 공급을 지방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방경제 개념에서 ‘지방(地方)’은 ‘비수도(非首都)’ ‘비중앙(非中央)’ ‘비공급(非供給)’ 등을 함축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지방경제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사회주의 모델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 발전하는 현실적 명분으로 작동하게 된다.

## 3. 지방경제 시장화와 체제 위기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는 1990년대 중앙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한 고리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동구사회주의 붕괴와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에서 원료·자재 수입이 중단되자 중앙 집권적 자재공급체계는 와해되었으며, 이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탄광에 필요한 갱목과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니 석탄생산이 하락하고, 석탄생산 하락으로 화력발전소에 석탄원료를 공급하지 못하니 전력생산이

2 군수공업은 내륙지역 중심으로 배치했다.



《지방경제 20×10 정책 추진 선전화》

하락했다. 심각한 전력난은 비료공장과 농업관계 부문에 타격을 주면서 식량난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이 내세웠던 '이밥에 고깃국'은 거품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사를 책임졌던 김정일은 '내가 혼자서 중요 부문만 틀어쥐어야지 경제사업에 맡겨두면 당사업도 못하고 군대사업도 할 수 없다'<sup>3</sup>며 경제위기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밀었다.

앞서 언급했듯 북한 지방경제는 지방 자원으로 공장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수자원 등은 중앙에서 공급하며 원료와 자재는 지방공업 자재총국에서 공급한다. 그런데 전기와 자재공급 자체가 붕괴되다보니 지방공장들은 멈춰 섰다. 지방정부도 대책이 없었다. 결국 기업과 주민 스스로 생존해야 했다. 생존기반은 시장이었다. 이로써 북한에는 아래로부터 자생적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태동하였다.

특히 지방에 소재하는 중앙공업에도 자력갱생이 강구되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방경제 시장화를 촉발하였다. 중앙공업이 자력갱생하려면 지역의 유휴 자원에서 원천을 찾아야 한다. 유휴자원이란 지역에 잠재된 시장자원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공업과 지역시장의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규모 중앙공업들이 입지한 지역의 경우, 중앙공업이 지역자원을 총동원할수록 중앙공업 기반이 지역시장 기반으로 활용되면서 시장화를 촉진시켜 새로운 시장을 파생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주민을 노동력으로 흡수해 임금원천을 제공하였으며, 2002년 발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제도, 2014년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등 정책 요인으로 한층 뚜렷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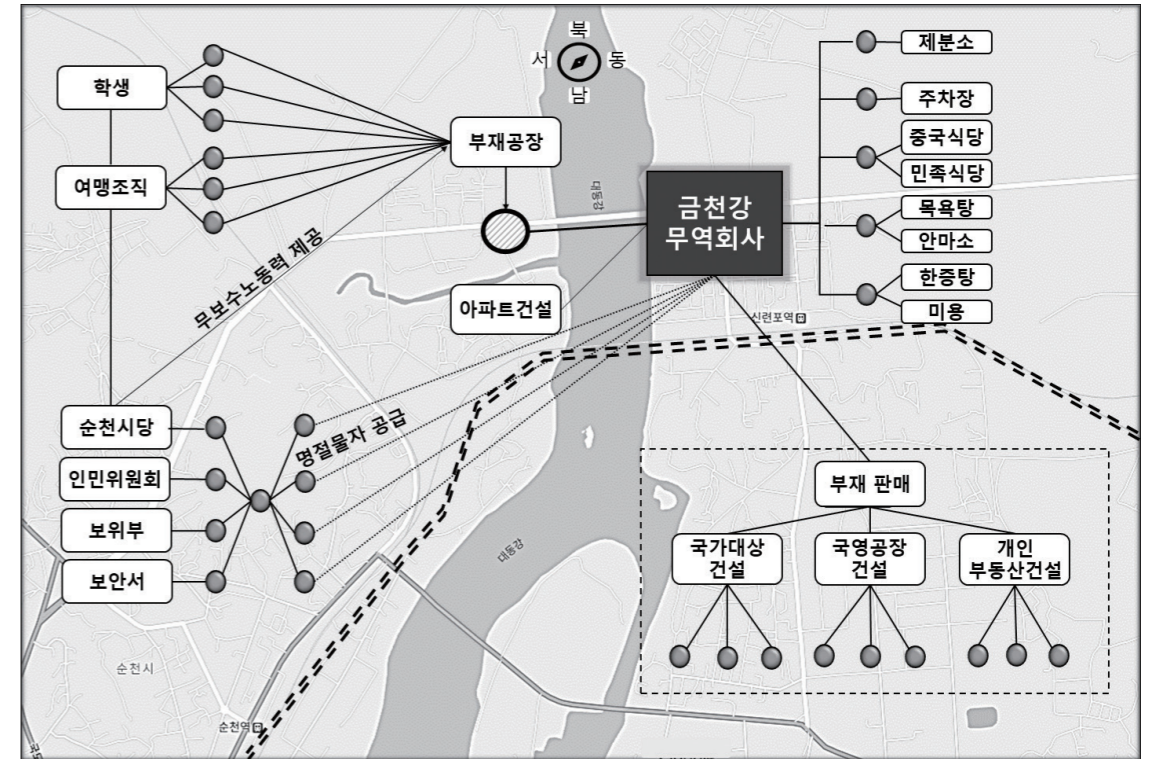
지방경제 시장화는 입지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차별화되었다.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교통의 발달로 석탄수출의 호황기를 맞은 순천지방경제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석탄 수요가 급증했다. 중국은 전세계 석탄량의 45%<sup>4</sup>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기과열로 에너지가 부족해 북한의 석탄을 대량 수입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송비용이 저렴한 강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원천 확보에 나서게 되면서 탄광설비와 식량 등을 선투자하였다. 고품질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남포항구와 교통이 연결된 순천탄광지역이 주목받은 이유이다. 순천에 중국 측의

3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시대정신, 1999), p. 22.

4 Barry Naughton,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 배리 노턴, 이정구·전용복 역,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서울: 경제경영출판사, 2010), pp. 452-453.

【그림 1】개인이 운영하는 '금천강무역회사' 다종기업 네트워크<sup>5</sup>



선투자가 집중되면서 특권층을 비롯한 전국의 돈주들이 순천탄광 일대에서 국영 명의 개인 탄광을 개발하였다. 계획 외 탄광은 수적으로 급증했다.

지방경제 시장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현금을 저축한 주민이 늘어나자 서비스시장이 파생되었다. 대표적으로 2004년 대동강 기슭에 설립된 '금천강무역회사 종합봉사소'이다. 지방정부에 세금을 바치며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봉사소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봉사시설이다. 수익금은 다시 생산기업 설립에 재투자되면서 영역을 확장하였는데, 당시 금천강무역회사 다종기업이 지방경제 시장화를 견인하는 모습을 【그림 1】로 도식화하였다.

#### 4.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독재정치 연관성

그렇다면 북한 지방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경제 시장화가 활성화될수록 중

5 최철, 『경제난 이후 북한 순천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2)

## 북한의 지역간 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함승수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특임교수)

### 들어가며

북한은 김일성 집권 이후 오늘까지 모든 인민들이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무교육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 문서나 국제 통계자료를 통해 볼 때, 북한에서 교육기회 접근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건들은 근본적으로 신뢰도와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을 비롯한 여러 증언들은 북한 교육의 불평등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증언한다. 북한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며 조직적으로 성분에 의한 차별, 아동에 대한 착취,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일상이 되어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은 교육을 통해 유지, 재생산되고 있으며 북한 교육 자체가 구조적 불평등의 산물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요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북한의 지역별 교육지표 분석을 통해 교육 불평등 현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북한 교육 불평등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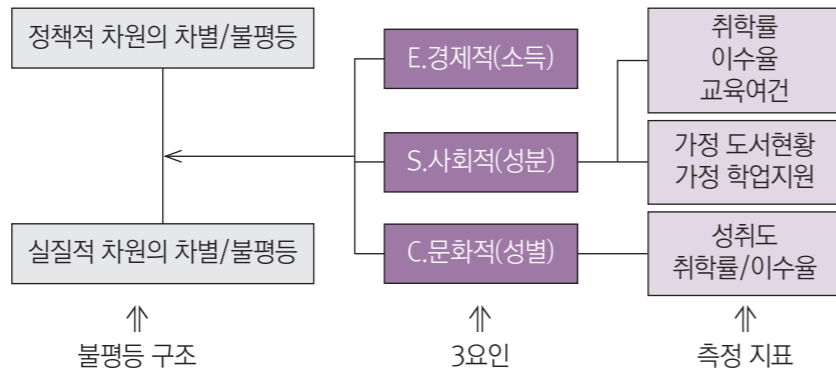
북한의 교육 불평등은 일차적으로는 교육정책으로부터 촉발되며, 아래 [그림1]과 같이 경제·사회·문화적 지표(E.S.C - Economic, Social, Culture status index, 이하 E.S.C)를 통해 강화된다. 교육의 불평등 요소들은 개인의 '교육 접근성'과 '교육 경험'에 배타적 차별을 용인함으로써 '교육 성과'를

양정부 세원은 증가하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은 증식하게 된다. 사회주의 붉은 자본가들은 권력층과 깊숙이 세력을 확장하며 당권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독재정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북한이 비사회주의를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 기업가들을 숙청하는 이유이다. 2007년 7월 금천강무역회사 50대 사장도 10만 군중이 집합한 가운데 순천경기장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체제이탈은 신흥부유층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을 터득하며 수령 충성보다 장사 아이템을 중시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현 주소이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시장발달을 장려해야 하지만, 시장의 발달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어 체제안전에 위협받는 것도 김정은 정부의 딜레마이다. 관리 가능한 시장완화 정책으로 지방마다 자리한 종합시장을 세금원천지로 활용해 왔던 김정은 정부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장억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1950년대~60년대 천리마운동을 강조하면서 계획경제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 의한 식량배급제를 살려낸다면 2022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를 전국에 도입했다. 시장을 통한 식량수급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식량수급으로 민심이반을 차단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지방 주민들은 식량배급제를 바라지 않는다. 장사할 자유가 없어지고 계급교양과 조직생활 통제가 강화되므로 시장억제 정책에 반감을 드러낸다. 특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외화를 쏟아 부어 대북제재를 자처하고 있는 당국으로 인하여 해외 투자유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체제문제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는 성년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교육책과 동시에 독재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김정은 정부가 올해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는 것인데, 첫째, 낙후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경제 시장화를 중앙이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둘째, 시장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던 지방자원과 시장세원을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하여 개인재산 원천을 없애고, 국가공급체계를 복원함으로써 체제충성으로 민심을 결집할 것이다. 셋째, 지방을 강화하여 기강이 약화된 체제기반을 재정비함으로써 백두혈통 세습을 안정화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평가된다.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자원은 상당한 예산이 지출돼야 하므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실행되는 앞으로의 10년은 김정은 정부의 독재정치가 강화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 북한 교육 불평등 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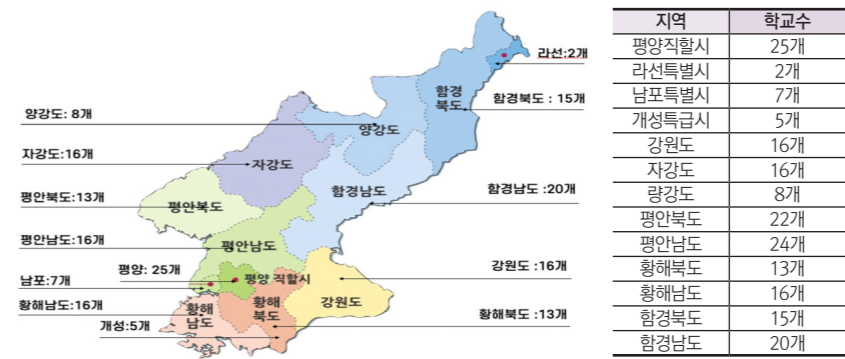
불평등하게 만든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은 개인의 성장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공동체의 빈곤을 심화시킴으로서 도시의 소득과 자산, 교육과 건강 등을 구성하는 인권의 토대를 무력화 시킨다.

## 북한 교육 불평등 현상

북한은 국가주의적 평등교육을 지향하며 12년제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를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고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유네스코 통계국(U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초·중등 교육 취학률이 89%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고, 2021년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유·초·중등교육 취학률은 이미 완전 취학을 달성했다(DPRK 2021: 22). 그러나 북한의 선전성 문건들은 해석과 신뢰도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교육 불평등은 의무교육 밖인 유아교육 단계와 고등교육 단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력이 북한 교육의 불평등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 개인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 및 접근성, 교육 경험 및 성과 등에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

### 1. 평양과 제1중학교를 통해 본 교육 불평등

북한의 교육 불평등은 김정일의 수재론(秀才論)에 근거한 엘리트 교육정책을 통해 구조화 되었다. 김일성 시대에는 엘리트 교육을 “교육을 받는 사람들 천성적으로 월등한 자와 열등한 자로 갈라놓음으로서 본질에서 근로인민의



[그림2] 1999년 북한의 제1중학교 현황<sup>2</sup>

자녀들의 열등성을 론거짓고 합리화하며 교육의 차별을 기초지으려는 반동적 교육”이라며 낡은 사상으로 폄하되었다(사회과학원, 1975: 87-88). 그러나 김정일은 1984년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북한의 교육은 정치사상교육 만큼 기초 과학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수재교육의 요람으로서 제1중학교의 설립의 필요성과 교육강령, 교육 방침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소위 ‘수재론(秀才論)’이 당의 공식 교육 철학이 되어 ‘개인의 개성 발전’과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이 주요 교육의 목적이 된 것이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 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된 이래, 평양의 ‘모란봉 제1고등중학교’, ‘동평양 제1고등중학교’, ‘창덕학교’ 세 곳을 제1중학교로 개편하고, 1985년에는 각 도 소재지 마다 총 12개의 제1고등중학교가 설립하면서 엘리트 교육이 본격화 되었다. 김정일은 전국의 시·군 구역 마다 제1중학교를 1개교씩 추가 신설하는 조치를 시행한 결과 1999년 4월 1일 전국에 200여개의 제1중학교가 일제히 개교하였다. 2000년 당시 북한의 고등중학교 수가 4,840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학교의 4.13%의 학교가 제1중학교로 전환 된 것이다. 1999년 전국에 200개로 확대한 제 1중학교 중 189개가 ‘교육신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특별시와 특급시에 최소 1개에서 최대 7개까지 제 1중학교가 설립되었고 각 시·군에도 각각의 제1중학교가 설립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 본 그림은 김유연(2013)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김정일의 수재론에 따른 교육정책은 제한된 교육자원이 제1중학교로 집중되어 ‘교육 접근성’ 및 ‘교육 경험’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경쟁에서 밀린 일반중학교의 대학진학률이 감소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교육성과 불평등’이 일상화시키기 시작했다. 더욱이 제1중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암암리에 활성화되어 철저하게 공적 영역으로 유지시켰던 북한 교육이 사적 영역과 공유되었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국가 중심적 교육 토대가 흔들리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교덕 외, 2007: 172-174).

최근 북한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특히 중등 교육 단계에서 교육조건과 환경 차이를 줄이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였지만(로동신문 2016.5.8.) 여전히 제한된 교육자원이 제1중학교로 집중되어 ‘교육 접근성’ 및 ‘교육 경험’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022년 7월 26일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강조하는 현대교육시설과 시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을 우선적으로 평양 제1중학교와 화상 제1중학교, 그리고 평양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세거리 고급중학교등에 도입했음을 알렸다.<sup>2</sup> 또한 평양 시내에 평양 제1고급중학교 산하 부속유치원 설립 계획을 알렸는데 이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을 평양에서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sup>3</sup> 여전히 북한은 평양과 제1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자원이 이뤄지고 있다.

## 2. 경제력에 따른 도농간 교육 불평등 현상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 이후 경제력은 북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학교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졌다. 교육 기자재는 낙후되었지만 보수조차 불가능했고, 식량보급이 끊어져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먹을 것을 구하려 나가 출석률은 떨어졌다. 북한이 자랑해오던 무상의무교육제도는 유명무실화 되어 수업료를 제외한 교과서나 학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이 학부모에게 지어졌고, 학교의 교육시설과 교육 물품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생계의 문제로 교원들조차 결근이 빈번해졌고 동시에 학생들의 결석도

2 출처 NK경제 (<http://www.nkeconomy.com>)

3 보도에 따르면 보통강구역과 중구역에 있는 부속유치원 2개뿐이었는데 이번 자격 심사에 통과되면 6~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데일리NK - <https://www.dailynk.com/20220720-5>

〈표 1〉 북한 지역별 교육지표<sup>5</sup>

	지역별 교육 교육지표 - 취원율 및 취학률					평균
	유아 취원율	유치원 이수율	소학교	초급중 취학률	고급중 취학률	
평균취학률	72.7%	98.3%	96.7%	96.1%	94.8%	91.72%
도시	72.8%	98.3%	96.8%	96.8%	95.0%	91.94%
농촌	72.6%	98.4%	96.5%	95.4%	94.5%	91.48%
평양	77.7%	95.5%	97.1%	96.6%	94.9%	92.36%
양강도	64.9%	95.8%	97.1%	86.0%	96.0%	87.96%
강원도	68.7%	97.8%	99.0%	96.9%	98.0%	92.08%
자강도	88.1%	93.9%	96.2%	97.3%	94.2%	93.94%
함경북도	53.3%	98.0%	97.0%	99.2%	97.8%	89.06%
함경남도	67.5%	100%	98.0%	96.1%	95.2%	91.36%
평안북도	77.8%	97.9%	93.9%	95.8%	91.3%	91.34%
평안남도	77.8%	100%	95.7%	95.9%	92.0%	92.28%
황해북도	70.1%	100%	95.7%	95.9%	92.0%	90.74%
황해남도	76.9%	100%	94.8%	93.3%	93.1%	91.62%

출처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7 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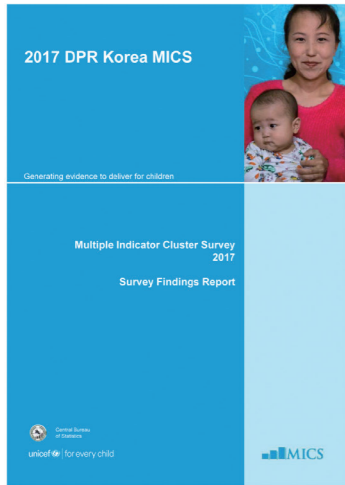
찾아졌다. 그리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과 열악한 경제 지역의 학생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이탈하며 공교육 체계가 취약 계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니세프(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에서 2017년 발표한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이하 MICS)의 지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MICS에 따르면 의무교육 전 3-5세 유아교육 취학률에서 양강도(64.9%)와 강원도(68.7), 함경북도(53.3%)와 함경남도(67.5%)가 평균 취학률(72.7%)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양강도의 경우 초급 중학교의 취학률(86.0%)도 평균 취학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 및 교육 여건이 북방 지역이 더욱 취약함을 보여준다(통일연구원, 2021). 반면 평양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신의주를 중심으로 경제 규모가 확장되는 평안북도와 북한 대표 도시 중 하나인 남포와 평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평안남도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내용들 중 주목할 것은 북한 지역 중에서도 ‘양강도’가 교육에 있어 가장 열악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표상 전국적으로 설립된 제1중학교의 개수에서도 양강도가 8개로 가장 적었으며 상급학교 취학률에 있어서도 양강도의 평균이 87.9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

4 초중등교육 취학률은 유니세프 MICS에서 계산한 조정 순취학률(adjusted net attendance ratio)이며, 각 교육 단계별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에서 해당학교급과 상급학교 재학생 비율을 의미함.

〈표 2〉 북한의 지역별 교육 자원/기자재 현황(아동도서)



**Table TC.10.2: Learning materials**  
Percentage of children under age 5 by the number of children's books present in the household, and by the type and number of playthings that child plays with, DPR Korea, 2017

	Percentage of children living in households that have for the child:		Percentage of children who play with:				Number of children under age 5
	3 or more children's books <sup>1</sup>	10 or more children's books	Homemade toys	Toys from a shop/manufactured toys	Household objects/objects found outside	Two or more types of playthings <sup>2</sup>	
<b>Total</b>	<b>50.3</b>	<b>2.3</b>	<b>41.9</b>	<b>89.8</b>	<b>39.6</b>	<b>59.4</b>	<b>2,275</b>
<b>Sex</b>							
Male	50.0	2.4	42.3	89.8	40.4	60.3	1,164
Female	50.6	2.3	41.4	89.8	38.7	58.4	1,111
<b>Area</b>							
Urban	55.0	3.2	40.0	91.6	36.5	56.9	1,361
Rural	43.1	1.0	44.6	87.2	44.1	63.1	914
<b>Province</b>							
Ryanggang	35.2	3.1	43.5	86.9	39.6	57.5	71
North Hamgyong	62.1	1.4	52.9	95.5	62.3	76.9	221
South Hamgyong	47.5	1.8	41.3	89.3	43.7	60.2	298
Kangwon	50.8	0.9	40.9	93.2	29.3	55.8	148
Jagang	63.6	3.0	46.3	85.4	32.8	56.3	131
North Pyongan	40.7	0.5	18.5	78.2	29.1	35.5	264
South Pyongan	47.9	1.8	47.6	90.1	35.0	67.3	386
North Hwanghae	47.1	2.1	41.3	90.4	52.3	67.8	242
South Hwanghae	40.6	2.9	58.8	89.1	53.1	74.2	237
Pyongyang	64.4	6.3	31.9	97.6	19.3	39.9	278

출처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래 MICS 지표에 따르면 양강도는 가정당 교육자원 특히 아동 도서 소장율(35.2%)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 평균(50.3%)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경북도의 상급 학교 진학지표 역시 양강도 다음으로 낮은 89.06%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북한 지역이 교육에 있어서도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유명무실화 된 무상교육.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 당국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무상교육은 사실상 종식되어 상당 부분 유료화 되었다. 학교에서 지급하던 교복과 학용품 등의 교육용품은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교육 환경과 시설에 관한 재정 역시 '꼬마 계획'이나 '학교 꾸리기 사업'등을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다. 교과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마당에서 교과서를 구입하거나, 가난한 학생들은 직접 옮겨 쓰거나 컴퓨터에 입력하여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다(조정아 2007: 111).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벌과 생활총화시간을 통한 공개적 비난이 이루어져 빈곤층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업의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오히려 장마당으로 나가거나 농사일을 하는 등 '경제력은 교육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수익자 중심의 교육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도농간의 교육 격차가 더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가며

모든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은 고용과 임금, 빈곤 등 보편적 삶의 결정 요소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무상교육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장마당 및 돈주의 등장 이후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도농간의 격차가 교육 접근성, 교육 경험 및 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취약 계층은 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동시에 돈주를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들은 사교육을 통해 교육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교육의 계층화와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교육의 변화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가 변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변화된 교육을 통해 길러낸 사람들이 사회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교육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한말 조선 땅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들은 근대 교육이 이식되는 통로가 되어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학교들이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여 역사 유례없는 대한민국 성장의 화수분이 되었던 것 같이 향후 북한에 다양한 기독교학교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한반도 전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유연(2014).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교덕(2007).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 통일연구원.  
조정아(2007).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교육사회학연구 17(4), 109-131.

〈국제규약 및 문건〉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7.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북한문헌〉  
사회과학원(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평양:사회과학원출판사,

#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 제 3화

### 지 한 나 전도사

내가 거쳐 온 경로는 중국 곤명(쿤밍)에서 남쪽 국경을 통해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이었다. 두 나라의 국경은 말 그대로 험산준령이었다. 일행 4명이서 힘겹게 산을 세 개를 넘었다. 천신만고 끝에 라오스 국경을 넘어가니 웬 봉고차 하나가 우리를 마중 나왔다. 나는 그때까지 대한민국 사람은 드라마를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다 장동건, 권상우처럼 생긴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반팔 티에 슬리퍼를 신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구수한 말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니 사진을 가지고 우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사진을 가지고 있나 싶어 누구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 사람이 한국 남자라는 것인가? 충격을 받은 나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어머, 한국에도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 선교사님은 “예~ 한국에도 이렇게 못생긴 사람 많습니다~”하며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얼굴 확인이 끝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민 6명이 더 있었다. 센터에서

는 그간 고생했다고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보양식을 차려놓았다. 그 음식을 보며 이전에 북한에서 배운 것이 생각났다. 북한에서는 선교사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사과 하나 주워 먹었다고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긴 선교사 얘기가 머리에 박혀 있었다. 그 악마 같았던 사람에게 보양식을 얻어 먹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 그래도 생각만큼 무섭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닌가보다 싶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나눠주었다. 이 성경을 석 달을 공부해야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내가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싫은 물건이었다. 복송 당했을 때 교회나 성경 관련해서 심문을 당하기도 했던 내가 이 책을 석 달이나 공부해야 한다니... 어렵게 성경에 손을 뻗었지만 읽으려고 해도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억지 같은 상황에 화가 났다. 결국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찌 믿으라는 거냐며, 웃기지 말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어지지 않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곳의 하루 일과는 빡빡했다. 새벽기도를 드리고,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다시 성경을 읽는다. 중간 중간 식사 시간 외에는 성경책을 붙잡아야 하는 일과에 나는 교화소 수감 생활 생각이 났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으니 보내달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나를 잡지 않고 순순히 가라고 했다. 그런데 문 밖을 나오니 바로 옆에 중국 대사관이 있는 것이었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진짜 혼자서 중국에 돌아가다가 잡히면 다시 복송이 될 텐데... 그때는 진짜 죽음뿐이었다. 결국 나는 석 달만 꼭 참기로 결심하고 다시 센터로 돌아갔다. 어차피 버텨야 하니 믿는 척이라도 하자고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크게 아멘을 외치고 다녔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버티다 한국에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2월이 되었다. 성탄절을 맞아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그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다. 영화를 틀어주기 전, 선교사님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셨다. 나는 선교사들이 날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싫었다. 왜 그렇게 아무나 보고 사랑 타령을 하는지... 무슨 바람둥이도 아니고 말이다. 나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사랑받아 본 적 없으니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듣는데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교화소에서 출소한 이후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있자니 눈가가 촉촉해지고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

니다.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미쳤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죽였겠는가고 반문했다.

드디어 영화 상영이 시작되었다.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이 눈앞에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성경을 대충대충 읽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도 읽었던 것이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영화에서 예수님이 고문 받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며 나는 못을 박지 말라며 울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니 내 얼굴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 나는 영화 시작 전후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있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된 것이다.

영화를 본 그날 밤, 나는 밤새 울며 기도했다.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감사가 아닌 원망과 한탄이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북한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지난 날, 고생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다. “왜 나를 교화소에 보내시고, 딸을 버리게 하고, 고향을 떠나게 만드신 겁니까?”라며 울면서 밤새 기도하던 나에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다.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는 감동이었다. 나는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 있는 내 자식들은 어찌면 좋은지, 왜 나를 부르셔서 우리 자식들은 누가 키우는지 따져 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다 키운다. 너를 위한 뜻이 있으니까 자식 걱정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리고 “내가 너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위로해주셨다. 사실 나는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선교사님이 곁에서 말하시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선교사님”하고 불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고, 그제야 이곳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었다. 기도를 하고 나니 옷은 온통 땀에 젖어있었지만, 내 마음은 마치 비행기를 타도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올라간 듯 상쾌했다. 선교사님은 나를 보시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다. 온 밤을 새며 기도했던 일을 다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격려해주셨다.

센터에서의 남은 두 달의 시간 동안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 저는 북한을 떠날 때 내 고향이지만 침 뱉고 소금 뿌리면서 죽어도 다시 오지 않겠다고 하고 왔는데 왜 다시 그런 땅에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가는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첫째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둘째는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또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다.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공부일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기도했을 때 “신학”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또렷해졌다. 그 당시 나는 신학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선교사님께 기도하다가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감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자 선교사님은 “아, 사명을 받으셨군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사명이라는 말도 처음 듣는 터라 선교사님께 그 뜻을 되물었다.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치시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한편,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라오스 센터에 방문하셨는데 그 중에 한 탈북민 목사님께서 신학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목사님께 여쭙어보니 신학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신학이 뭔지 잘 모르지만 당신이 가라하시니 가겠습니다.”

드디어 석 달의 시간이 지나고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에 오면 탈북민들은 국정원에서 석 달,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내야 한다. 한국에 왔으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나는 무조건 신학 공부라고 대답했다. 국정원에서도, 하나원에서도 신학타령만 했다. 2016년 10월, 드디어 하나원을 졸업했다. 이미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언니네 부부와 함께 수요예배를 갔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없었다. 처음에는 교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달만 다녀보라는 언니의 말에 꾸준히 다니다보니 어느덧 나도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했기에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신학 공부를 준비했다. 당시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모집이 끝나 있었고 서울신대

만이 모집을 하고 있었다. 신학교에 지원하려고 보니 당회장 추천서가 필요했다.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교회를 다녔고 교인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당돌하게 목사님께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새신자 교육도 받지 않고 등록교인도 아니면서 목사님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일인가 하여 부목사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겨우 석 달의 성경공부와 한 달의 교회 출석밖에 못한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니 목사님은 당황하셨지만, 내 대답은 “하나님이 날 거기로 보내니까 가야죠.”였다. 처음에는 한번 거절을 당했지만, 나의 끈질긴 요청에 담임 목사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담임목사님께서도 당돌한 나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셨고, 추천서는 받을 수 없었다.

추천서를 받지 못한 나는 이게 뭔가 싶어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 “하나님, 목사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안되는 걸 보니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더 썩 사람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철없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다시 한번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이번에는 전거리 교회소에서 있었던 일을 비롯한 인생 역정을 자세히 말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 나는 두 시간을 울면서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다.

어렵게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신학교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았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다. “당신이 쓰시겠으면 합격을 시켜주소서!” 면접에서의 첫 질문은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대답했다. “네, 낼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또 다시 물

었다. “왜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이 흘린 핏 값에 비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한 대답이 아닌, 내 입에서 나오는 줄도 모르게 튀어나온 대답이었다. 면접관들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는 말을 덧붙이셨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한학기만 하고 자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오신지 두 달도 안됐으니 한학기만 해보시고 힘들면 자퇴하셔도 됩니다.” 나를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빴다. “선생님! 탈북민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죽어도 신학을 할 테니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면접을 마무리하고, 나는 감사하게도 신학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생이 되었지만 나는 면접관들이 왜 중도 포기를 이야기했는지를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등록금이 큰 부담이었다. 특히 이제 막 한국에 온 내게는 참 큰 돈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재정문제는 한 시름 덜었다. 그렇지만 더한 난관들이 첩첩이 산중이었다. 이제 막 남한 정착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대학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다. 새 학기를 맞아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강신청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그리고 컴퓨터도 잘 못 만지는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교우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강신청은 마쳤지만 본 수업을 이해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히브리어 수업이었다. 필수 과목이라 반드시 수료를 해야 했는데 두 번이나 낙제점을 받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어느덧 신학교 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해

야 하는데, 이 과목 하나 때문에 졸업을 못할 상황에 처했다. 아무리 해도 너무 어려워 그냥 자퇴해야 하는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간신히, 그것도 교수님의 많은 배려로 겨우 과목을 수료하고서 나는 노트북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야 했지만 공부가 너무 고생스러웠다 보니 나는 “하나님, 다시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다가도 치가 떨립니다.”라고 기도했다.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다고 제대로 일도 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리라 하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인도하셨다. 사실 나는 신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사역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며 나에게서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서운하고 속상했다. 그런데 졸업 후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해외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

졸업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미주지역을 방문하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북에서 그렇게 듣던 주적의 나라에 방문하다니 괜히 긴장되면서도 꿈만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북한에서의 고단했던 삶과 참혹한 교회의 경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방문이 특별했던 이



유는 멕시코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덕분이었다. 사실 그동안 나는 그동안 선교사님들을 그리 높이 보지 않았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매주 바쁘게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은 교회도 없이 해외에서 무슨 일을 하시며 지내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멕시코 현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외로운 타국에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복한 선교를 하라.” 는 마음을 주셨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갓 믿을 때부터 신학 공부의 감동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공부가 힘들다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귀국 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신대원에 진학하였고, 현재도 학업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간증을 다니면서 나는 여러 질문을 받는다. 그 중에는 ‘북한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와 같은 부정적인 것부터 ‘왜 가족과 자식을 버리고 혼자 살려고 한국에 왔는가?’와 같은 가슴 아픈 것들도 있다. 단지 배고파서, 또 살기 위해 애썼을 뿐인데 일부 색안경을 낀 사람들의 눈초리는 참으로 차갑고 매섭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라고 말이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여러 탈북민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통일

이 되면 가야 한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고 있다. 어떤 때는 두고 온 딸이 너무 보고 싶고 이 생이별의 상황이 참으로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식들을 지켜주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신다.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는 북에 남은 가족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내가 간증을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 두 곡이 있다. ‘사명’과 ‘그 날’이라는 찬양이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힘찬 산도 나는 관함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관함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 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 가는 나의 백성들  
정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리 너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너의 자녀들 살아있는 그 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 날

찬양을 통해 고백하듯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은혜이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전거리 교회소에서 정말 신이 있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되뇌었던, 그 기도 아닌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그리고 동료 탈북민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니 어서 돌아와 함께 복음 전하자.”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에 가족과 고향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끝)

## 코로나 이후 첫 러시아 관광객 평양 도착



<2월 9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러시아 관광객 (주북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첫 외국인 관광이 이루어졌다.

2월 9일 러시아 여행객 97명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은 9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편으로 북한으로 출국했으며, 평양에서 하루를 묵은 뒤 김일성 광장, 개선문, 주체사상탑 등을 둘러보고 원산 마식령스키장 리조트를 방문하는 3박4

일 일정이다. 이들 관광객이 1인당 부담한 비용은 750달러(약 100만원)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했다가 3년 7개월 만인 작년 8월 국경을 공식 개방한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단체관광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월 13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과 극동 매체 프리마메디아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3월 북한에 2·3차 단체 관광객을 보낼 예정이다.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은 "2차 단체관광객은 3박 4일간(8~11일) 일정으로, 3차 단체관광객은 4박 5일간(11~1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2월 9일 외 언론보도 종합)

##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北, 새 노동자 집단 해외로 파견”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이 최근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해외로 파견했다고 말했다고 2월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터너 특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경 통제를 완화해 해외에 있던 북한 국적자들이 돌아오면서 새로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해외에 파견됐던) 다수 개인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이 현재 확실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해외로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새로 해외로 보내지는 북한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일 가능성이 우려되며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2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산 사이 기차역에서 노동자로 추정되는 북한인 300~400명이 열차에서 내려 도착하는 모습을 현지 소식통이 직접 목격하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에 노동자를 파견해왔다. (참고: 연합뉴스, 2월 14일)

## 통합위 “탈북민→북배경주민으로”... 포용정책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위원장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 또한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배경주민 대다수(작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에 따라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적 인식 제고 ▲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출해, 특위에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

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참고: 연합뉴스, 2월 21일)

# 임금체불 北노동자 2천명 1월 中서 공장 점거... 관리인 맞아 숨져



보도에 따르면 폭동의 도화선은 지난해 북한에 귀국한 동료 노동자들이 귀국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북한 회사는 중국 회사로부터 1인당 월 약 2천500~2천800위안(약 46만~52만원)을 받는 데 이 가운데 숙박과 식사 비용(월 800위안)과 무역회사 몫(월 1천위안)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는 700~1천위안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무역회사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된 2020년 이후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노동자 몫까지 전액을 받아 가로챘다. 총액은 수백만 달러(약 수십억 원)에 이르며 북한 수뇌부에 상납하고 회사 간부도 착복했다고 한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도 지난달 북한 소식통 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노동자 파업·폭동 관련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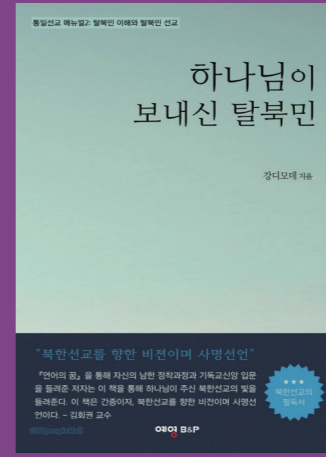
북한 당국은 밀린 임금을 줘 노동자를 달래는 한편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 약 200명을 특정한 뒤 절반가량은 북한으로 송환했다. 북한 소식통은 "주도 노동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고: 연합뉴스, 2월 17일)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월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천명은 1월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룡(和龍)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임금 체불에 화가 나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들을 인질로 잡고 파업을 선언했다. 북한 당국은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해 수습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은 이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 폭동은 1월 14일까지 계속됐고 인질로 잡힌 관리직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외국 파견 노동자들이 일으킨 첫 대규모 시위"라며 "노예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 젊은이들의 반골 의식이 표면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선교의 빛 /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  
저 자: 강디모데  
출판사: 예영 B&P  
발행일: 2024년 2월 5일  
가 격: 각 12,000원

한국 교회에게 북한 선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명이다. 그렇지만 일선 교회 입장에서는 이만큼 난해한 사역분야도 없을 것 같다.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알던 북한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고, 직접 가보거나 경험하기 너무나 어려운 선교지이고 일선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적이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도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그러다보니 북한 선교에 마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내용이 참 필요하다.

엔케이피플선교회 강디모데 대표가 최근 저술한 '북한선교의 빛' 과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은 이러한 교회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언어의 꿈'을 통해 본인의 신앙와 탈북 스토리를 나눠주었던 저자는, 이번 통일선교매뉴얼 시리즈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선교적 이해와 함께 본인이


몸담고 있는 북한선교와 탈북민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먼저 '북한선교의 빛'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선교 전반에 대해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곳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북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짧은 지면 속에서도 간결하게 전달하고, 그와 함께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참여를 독려하고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칫 감성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북한선교라는 주제이지만 성경의 메시지와 다양한 연구 레퍼런스를 인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더했다. 그러면서도 사역에 지식적으로 접근할 때 흔히 보이는 실제 사역과의 괴리나 냉소적인 태도 등을 피하고 본인의 경험을 녹여냄으로서 균형을 맞추었다.

북한 선교는 그 특성상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요약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지면의 제한 속에서도 여러 북한 선교 사역을 다루고 있지만, 아무래도 탈북과 구출 등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사역 내용이 주요 골자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은 해당 도서의 특징으로 감안해야 하겠다.

‘북한선교의 빛’이 북한의 이해를 돕고 해외 제3국과 국경지역에서부터 북한 내지까지 연결되는 북한 사역과 기도제목에 담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은 국내외 탈북민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교회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역 영역임을 감안한 듯 탈북민들의 특성 이해에서부터 사역적인 고려점과 유의점, 전도와 양육 및 이단문제 등 실제적인 사역 방안, 국내외 탈북민 사역 소개 등 실제적이면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

다. 저자 본인이 탈북민이면서 또 사역자이기에 책의 내용이 실제적이면서 현장에서 오해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어 사역 매뉴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두 책은 일반 도서에 비해 작은 판형에 약 200페이지 가량의 컴팩트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제한된 분량에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 저자의 노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교회에서 사용하기에는 두껍고 내용이 많은 책보다는 이런 구성이 유용할 것이다. 통일선교매뉴얼이라는 부재를 달고 나온 책인 만큼 교회에서 실제 매뉴얼로 활용하기 좋은 내용과 구성을 보인다. 두껍고 어려운 책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교회에서 활용할 북한 선교에 대한 책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이번에 소개하는 두 책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1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남한을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2국가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통일에 대한 방침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계속된 무기 개발 과시 및 각종 발사 시험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북한의 전략 속에 한반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을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반도에 전쟁과 피흘림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해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여러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직접 지방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20x10 정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당국이 공식적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만큼 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한된 국가 재원을 군사력 증강 등에 집중하는 북한의 상황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강조하는 이민위천에 진정성 있게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핵과 무기가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심해지는 빈부/지역격차가 완화되고 소외된 주민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3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과 강화된 단속 및 처벌로 한류 미디어를 포함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의 행태 척결을 위한 노력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당국의 강화된 통제와 공포정치 속에 더욱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국으로 재정립한 만큼, 한류 문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인간적인 억압과 통제, 그리고 과도한 형벌과 단속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의 인권이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진정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보도된 데 이어 선교현장에서는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사건 및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에 대한 억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5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한 제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직 수감되어있는 1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송된 이들이 당할 강도 높은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8	북한선교와 한국교회	하충엽 교수(송실대)
	2	4/15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이해	최설 박사(심연북한연구소)
	3	4/22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경제와 장마당 이해	양운철 박사(세종연구원)
	4	4/29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사회와 문화 이해	정종기 교수(아신대)
	5	5/6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 교회사 이해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6	5/14(화요일)	DMZ 기도회	
북한 선교 현장 이해	7	5/20	북한 종교 박해의 실상	박하나 목사(북한수용소 경험 지하교회 성도 출신)
	8	5/27	국내 정착 탈북민선교 사역의 이해	류달주 목사(사랑방교회)
	9	6/3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 협력 문제	정인수 목사(전 CCC 국제 부총재)
	10	6/10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박사(IBA 사무총장)
	11	6/17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대표(TWR 북방선교방송)
	12	6/24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3	7/1	제삼국 북한 여성사역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4	7/8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15	7월 중	제삼국 비전트립	

**시간** 2024. 4. 8 ~ 7. 8 매주 월요일 저녁 7:15 ~ 9:15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상봉역 부근)  
\*현장강의를 기본으로 하며 지방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강의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비** 15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2024. 2. 26 ~ 3. 29, 오픈도어 홈페이지(<https://www.opendoors.or.kr/>) - "이벤트 및 공지 사항"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